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명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남녀전도회 지회 임원 훈련 성료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오태희 장로)는 지난 2월 13일 갈릴리 홀에서 남녀 전도회 98개 지회 임원과 직능, 지역 전도회 임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종윤 위임목사는 특강을 통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부단히 자기를 개발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중의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각 전도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디오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활발했던 전도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전도위원회 지도를 맡고 있는 김광석 목사가 각 지회의 90년도 자원자를 소개하고, 임원들이 전도회를 효과적으로 이



끌어 가는 데 필요한 운영 요강 및 업무 지침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임원들은 전도회 각 지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본이 됨을 인식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90 제자훈련 실시 3월 22일 시작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원은 오는 3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천국일꾼 양성”이라는 주제 아래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서리집사, 권찰, 교사 및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90년도 제자훈련을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한다.

이 훈련은 흥해작전, 여리고작전, 시온성대행진을 통해 깨우친 영적 각성을 사명감으로 고취시켜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을 행동 원리로 삼아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 일꾼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훈련 일자는 개인 사정에 맞추어 2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열기로 가득한 1교구 전도회 기도모임

작년 9월부터 베드로 남전도회(전 대모래 남전도회) 1지회가 주축이 되어 모이기 시작한 새벽기도 모임은 달에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주일 아침을 제외한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베다나 홀에서 갖고 있는 새벽 기도 모임은 이제는 여전도회 회원까지 합세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특히 교구 및 전도회의 부흥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실천토록 다짐하며 특별히 개인기도 제목에 있을 때에는 합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회자세미나 개강예배



그동안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에 초석이 되어 온 목회자세미나의 제4학기 개강예배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0여명의 교역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 12일 본당에서 있었다.

윤용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은호 장로(한국교회 성장연구원 원장)가 대표기도를 하였으며, 이종윤 위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회생을 각오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여전도회에서는 이 세미나가 계속되는 4월 16일까지 세미나에 참가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발행된 각종 간행물을 나눠주는 등 봉사를 하게 된다.

청년1부 겨울계절학교 및 전도집회

청년1부는 2월 18일(주일) 오후 1시 30분 소석관 601호실에서 초청전도 집회를 갖는다. 현재 130여명의 회원이 출석하고 있는 청년1부는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200명의 회원 배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충현기도원에서 “크리스찬의 경제관”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는데 강사는 이종윤 위임목사, 김정우 목사, 김세열 교수이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⑥

존경하는 H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바치신 헌금 봉투가 두꺼워서도 아니요, 남들이 바치지 않는 헌금을 바쳤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깨끗하고 순수한 목사님의 헌신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동역자를 우리 충현에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미끄러운 길을 헤치며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찾아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권면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무슨 수고의 대가가 물질로 계산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집을 찾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종종 점심도 대접하지 못하고 다음 집으로 떠나시는 목사님께서 우동 한 그릇이라도 사 잡수시도록 요구리에 찢려넣어 주신 봉투를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은 교회가 주는 것 이외는 일체를 하나님께 은밀히 바치기를 시작했지요. 봉투를 주신 성도님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헌금이 바쳐진 것조차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가정의 대사를 치루게 될 경우 대개의 가정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주례자에게 주신 봉투도 예의없이 하나님께 바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부 강사로 나가셔서 수고를 하신 강사로조차 골리반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신 깨끗한 헌신이 어찌 목사님만의 헌신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물광주의의 탈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터에 목사님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교역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충현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윤 목사

위임목사 동정

13교구 모임에서 말씀 증거

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주재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2월 16일 선교관 만나 홀에서 열린 13교구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증거하였다.

한편 이 목사는 22일에 부서별 교과과정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4교구·8교구 단합대회 가져



새 봄을 맞아 교구마다 활성화와 진목을 위한 교구 모임이 활발하다. 지난 주일(2월 11일)에는 4교구와 8교구가 교구 모임을 가졌는데 4월에 있을 교구찬양대회를 의식한 타인제 예배 후에 찬송 연습을 가지는 열의를 보였다.

4교구에서는 4부예배 후 매주라기 홀에서 교구 전체 모임을 가졌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의 최인근 목사

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드린 후 교구장 오진국 장로의 사회로 교구 일꾼 소개가 2부 순서로 진행되었고 3부에는 오찬 및 친교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모인 4백여 명의 식구들의 사랑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마지막 순서에는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손을 잡고 찬양을 드리는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같은 시간에 소석관 205호에서 진행된 8교구 가족모임은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8교구 담당목사인 김영구 목사의 설교가 있는 후 박철훈 장로의 사회로 남·여 전도회 임원 소개와 친교회가 있었다.

점차 활성화 되고 다양화 되고 있는 교구모임들을 통해서 구역이 점점 배가되고 교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무리들의 쟁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며...” (요7:40~44)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0:34~35).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투하라고 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전파되면 진리 안에서 서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열이란 나쁜 것으로, 연합이란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악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은 나쁜 것이며 좋은 것

둘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요7:41)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주장하신 그대로를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에는 객관적 이해와 주관적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지식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깨닫는 것이 주관적인 이해, 즉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알았습

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대적인 사람들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요7:44)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고 해하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해했기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해하려고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고전6:19,20).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육신과 영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 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 속한 것을 생의 목표로 삼지만 신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들이 공을 차서 앞으로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뒤로 패스를 하기도 하고 옆으로 차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상대방의 골입니다. 옆으로, 뒤로, 앞으로. 차다가 골대로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서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닮고 그를 쫓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섬기

검을 주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

로부터부터 분열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연합은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쟁론은 토론 정도가 아니고 분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 불신자간의 분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신자들 중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불신자들의 사회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본 사람들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요7:40)

이 말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신18:15). 그러나 지금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날 전령사 정도로 보았습니다. 말라기 서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전령사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로 움직이게 한다고 하며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말4:5,6).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전령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고백하고 몸으로는 나와 앉아 있었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이들은 이러한 진리를 객관적으로만 깨달았지 주관적으로 자신들의 실제 생활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관적 이해와 헌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위선적인 교제나 체면적, 사업적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7:41,42)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고 베들레헬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이 두가지 약속에 모두 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지를 출생지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베들레헬에서 다윗의 혈

2. 신자와 불신자간의 분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만, 신자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헌 것을 세탁해 놓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방법과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반면,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

불신자와는 분리되고

성도들과는 연합하는 삶

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추종하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냄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옛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늘 관심을 가집니다.

생명은 한자로 낫 생(生)자에 명할 명(命)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것을 명령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생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가저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생명이며

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못한 이가 있다면 그분의 권능과 아름다운 성품을 믿고 지체없이 그분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와는 분리하고 신자에게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3:28).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된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고 함께 평안을 누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들이 평안하게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 탐방 - 청년 1, 2부 찬양전도단

도시의 노래하는 전도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젊은 남녀성도들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이들은 바로 청년 1, 2부 찬양전도단이다.

이들은 효과적인 전도와 담대함을 위하여 매주 기도회를 가진 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 화, 목, 토요일마다 명동, 서울역, 청량리역으로 나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뒤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으로 찬양을 드리고 행인들에게 일대일로 4명리를 가지고 성경말씀을 전하는 개인전도도 하며 전도지를 배부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도활동에 동참하는 인원이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그들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개인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엠프와 마이크 시설 및 율동 등 찬양에 필요한 시

설과 연주자가 부족하여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지도 교사가 없는 것 또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와 비전을 갖게 해 주실 때 진정 큰 보람을 얻는다고 한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기도와 끊이지 않는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교회내에 활성화된 도시 선교팀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 청년 1, 2부 찬양전도단으로 인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 봉사의 현장

작지만 밝은 사랑의 빛
대학부 돌베개

우리들은 흔히 연말이나 특별한 명절때만 되면 불우이웃을 떠올리고 그들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일년내내 그들의 고통을 잊고 살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그들을 작은 목소리로 돕고 있는 그룹이 있다.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돌베개는 고아원 방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서클이다. 돌베개는 원래 청년부에서 10여 년 전부터 활동해오던 단체였는데 88년 2월부터는 대학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회원들이 모여서 후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혜심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60여 명의 원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친교의 시간도 가지며 찬양도 함께 한다고 한다. 이미 그곳의

원생들과 회원들간에 두터운 정이 들어서 혜심원의 원아들도 돌베개 회원들을 식구처럼 따르며, 돌베개 회원들도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또 돌베개는 매년 일일차집을 열어서 재정적인 도움은 물론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회원들간의 친목과 결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2명이고 에스더 4지회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돌베개는 차갑고 메마른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에서 작지만 아주 밝은 빛을 나타내고 있다.

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중현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기다린다

새로 태어난 기쁨

장 재 영 성도

아버님께서 10년 전에 영세를 받아 우리 가족은 모두 가톨릭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외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머니와 누나는 중현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고 86년 1월과 6월에 누나와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해 6월에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개종을 하기를 권하셨지만 저는 꼭 개종을 할 이유가 없다며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가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가 바빴고 어머니를 뵈지도 않고 그냥 귀대해 버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부대에서 회식이 끝난 뒤 내무반에 있는 몇 사람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눈을 떠 보니 저는 수도육군통합병원 병실에 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니 술에 만취된 제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리시던 술을 마신 것을 그때처럼 뒤우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속히 개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마음 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22일과 23일 교회에 나와 교리공부를 하고 24일 수요일 낮 예배 때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날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열심히 주를 섬기며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받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보탬이 되는 일이 되어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지켜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독자의 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정 란 성도

새벽기도회에서 히브리서 강해를 듣던 중 나는 별안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무서운 죄가 우리 몸에 흘러 우리의 삶은 피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끝내 영원한 지옥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죄라는 중병에 걸려 육신은 문둥병자와 같이 무감각한 상태로 썩어만 갔고, 마음의 허탈감과 공허감을 채울 수 없어 여기 저기에서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쁘기만 했던 우리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마취제에 도취되어 경각심마저 잃어버린 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백 군이 넘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리 비를 저리 비를 하셨을까. 눈물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다.

그 무서운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 사단의 꾀박에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님,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예수님, 우리의 문제에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그분의 사랑과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저기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호흡 다하는 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충성하며 하리라.

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신 8:17, 18)

위의 말씀을 보면 재물 얻은 자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셨다.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되 재물도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실력으로 되었다거나 부모의 유산으로 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교만이나 방자함을 경고하신 말씀이다. 욕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부한 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금하는 성도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때에 성숙한 신자로 인정되지 않겠는가. 자기 돈 지갑만 만지작거리거나, 지금까지 탐욕을 수고한 과거에만 집착하거나 내 쓸것부터 계산해 놓고 남는 것으로 드릴 마음이 있다면 아직 찾아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취할 어린아이이리라.

감사한 것은 우리 중현교회의 예산의 63퍼센트 이상이 십일조 헌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십일조 헌금을 바치는 성도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

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본다. 나 한 사람이 바치는 헌금의 정도가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의 능력밖에 안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함이 있음을 알 때 나 한 사람의 헌신이 가져다 주는 기적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 톨이라도 그 쓰여짐의 낭비를 배제하고 효과 있는 사용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를 발휘하여야겠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쓰여지고 있는 재정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하는 신앙고백을 하면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 중현교회는 하나님의 외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다음호 세기등은 오진국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
되는 비결

박 철 훈 장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탐욕과 일하고 얻은 재산의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또 부의 축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소유욕의 인간성을 재삼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재물관은 그렇지 않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유교로 다져진 가정에서 독자로서의 위치와 가문의 혈통을 이어 받은 나는 어린 시절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할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더이상 기독교를 고집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아주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군에 입대할 때까지 세상을 쫓아 살면서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지극한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 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살았다.

중단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에 매력을 느껴 정치인을 쫓아 다니며 약 2년간 허송세월을 했으며 엉뚱한 생각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명망 있는 한 분의 소개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내 뜻을 펴며 착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입사했다. 그때만 해도 지방 언론사는 꽤나 인기가 좋을 때라 나 자신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좌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몸도 극도로 쇠약해져 만 2년만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그때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라는 조부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오래 전부터 사귀어오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아내는 결혼 후 나에게 늘 예수 믿을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한번 세상 일에 재미를 붙인 나로서는 먼 옛날 이야기 같게만 들렸고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핀잔만 주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안될 것이라고 입속

잔증

죄인을 부르시어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최 중 시 집사



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계열회사로의 복직과 동시에 서울 주재 사무소로 전근 발령을 받게 되었다.

아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힘든 서울 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에게 교회 나갈 것을 간절히 권했다. 주일이면 아내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교회로 동행하기를 권하였지만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마지 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몇번 따라가곤 했다. 하지만 이미 얼어붙은 마음의 동토는 녹을 몰랐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징벌을 가하셨다. 78년 초봄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기로 인한 현상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약국에서 코감기 약을 지어다 먹으며 나아지기를 기다렸지만 나올 줄을 몰랐다. 계속 흘러내리는 콧물 때문에 하루에 휴지 한 통이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다.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보았으나 비염으로 인한 것이라며 곧 치료가 될 것이라고 진단해서 많은 약을 써 보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둥병 같이 살갗

까지 벗겨지는 추한 모습으로 악취까지 풍기는 악화일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몰골로 직장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공포에 쌓여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서 지냈다. 아내는 그렇게도 목석같이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작복과 영접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새벽 기도와 철야기도를 열심히 했다.

실업자가 된 나 때문에 앞길이 막연한데도 나에게 성경 읽기를 권하며 당신이 나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여유를 보이는 아내를 볼 때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일기 시작해서 내 스스로 처음 성경을 읽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아무 뜻 없이 펼쳐 본 성경은 옴기 5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옛날의 못된 모습과 행동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확실히 보이는데 저절로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기까지 했다. 이를 본 아내는 좋아하며 기도원에 가고 하여 서둘러 청평에 있는 한얼산 기도원으로 갔다. 그곳에서의 4박 5일은 내 생애의 일대 전환기가 되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나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40일 철야 기도회에 들어갔다. 나의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이다. 철야 마지막날 새벽,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부여 잡고 기도할 때 확실한 새 그릇으로 변화되었다. 나는 그때 모든 것 염려 말고 깨끗함을 입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후로 놀랍게도 차차 코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되던 83년 7월 14일에 갑자기 코에서 악취가 나면서 콧막힌 것 같아 호흡 장애까지 일으켰던 증세가 갑자기 시원하여지며 정상으로 되돌아 왔다. 이렇게 변화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섬기는 교회도 옮기게 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맡겨 주셨다. 그러기에 더 많은 봉사과 충성과 회생을 하나님께 바쳐 거둔단 인간, 성숙한 십자,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총현성경연구원 개강

3월 2일 ~ 5월 31일

우리 교회 성경연구원은 전국일꾼 양성을 위해 교사양성부, 주간성경공부반, 야담반을 개설하고 오는 3월 2일 저녁 6시 30분에 배다니 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이 교육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수강을 원하는 교인들은 3월 4일까지 종합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주간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주간성경공부반은 최선의 삶(김주아 전도사), 민수기(김은태 목사), 크로스웨이(이조웅 강도사), 에베소서(최인근 목사), 야모스(김학진 목사), 요한일서(송태근 목사) 중 한 과목 이상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또한 이종운 위임목사가 직접 강의하는 야담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화교육 실시 예정

우리 교회 예배다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주 동안 수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석관 109호에서 현재 접수 중이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연구반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뜻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사무직원모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문필자로서 상급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세계 교인
- 구비서류: 당회장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 제출마감: 2월 28일

제출처: 총현교회 사무국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8 과 행위언약

성경: 창 2:16,17

요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찬송: 214, 439

제 12 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심리를 실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호 6:7; 롬 10:5).

설 명

행위언약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 아담과 더불어 세우신 엄숙한 협정이다. 곧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의 경우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형벌하실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여기서 사망이란 신체와 영혼의 분리,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재난과 고통을 뜻한다. 즉 육체적(전 12:7), 영적(엡 2:1; 계 3:1), 영원한 사망(계 20:6~14)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위언약의 상징은 바로 생명나무였다.

질 문

1.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전 7:29)?
2. 행위언약을 주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레 18:5; 겔 18:9)?
3. 결국 첫 사람 아담이 지은 죄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롬 5:19)?
4. 행위언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신 30:16, 18~20)?